군산의료원, 지역 공공의료혁신 '첫발'

급성기진료시설 · 감염병전담병동 준공… 지하 1층 · 지상 6층 · 410억원 투입

급성기 진료 · 신종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의료원의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 확충을 완료하며 지역 공공의료 혁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자치도는 4일 군산의료원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군산시장, 전북병원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및 감염병전담병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산의료원 급성기 진료시설 확충 사업은 2023년 4월 착공해 국·도비 총 410억 원이 투입됐으며,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응급의료센터, 영상의학촬영실 △2층 중환자실, 응급검사·병리과 △3층 수술실 △4~5층 입원병동 △6층 감염병 전담병동 등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354㎡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급성기 입원병동(84병상), 중환자실(20병상)을 새로 설치하여 지역 내 급성기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전담병동(7병상)과 감염분만수술실(1실)을 추가로 설치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기존 본관 2~3층 시설을 2027년까지 리모델링하여 건강증진센터, 여성의학센터, 외래진료실 등을 확장 및 재배치하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급성기 진료시설과 감염병 전담병동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필수의료와 감염병 발생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군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4일 군산의료원에서 열린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준공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익산시, 익산소방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안전단체 등과 함께 도민 안전문화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익산시 · 한국철도공사 · 익산소방서 · 민간안전단체 합동 진행

우수기관 선정 ·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 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익산시, 익산소방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안전단체 등과 함께 도민 안전문화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호남 최대 철도망을 갖추고 하루 약 2만여 명이 이용하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익산역 내 화재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이 병행됐다. 기차역과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인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며,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활동으로 '365일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포함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 전남과 더불어 '2024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시기와 계절에 맞는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계속 힘쓸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안전 DNA를 심다… 도, 관리감독자 교육 본격화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문 교육 실시… 현장 대응 역량 집중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행정기관 및 사업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84명이 참석해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제조업 및 건설업 중심의 기존 안전보건 위탁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형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업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 팀장, 실무자 등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응급처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고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주의한 업무 방식에서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 산업재해 예방의 초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025년 수산업 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도, 총 34명 모집… 최대 7억원 융자 지원 · 28일까지 신청

전북자치도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갈 청·장년층을 발굴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수산업 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과 기존 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어업인 후계자 28명과 우수경영인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선발된 인원에게는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과 맞춤형 경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어업인 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이며,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했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만 60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5억원(연 1.5% 금리, 5년 거치·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은 추가로 최대 2억원(연 1% 금리, 5년 거치·10년 균분상환)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어선 구입, 양식장 부지 확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신축 등 수산업 경영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선발된 자는 2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차년도 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선발을 희망하는 자는 어업 경력,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도내 수산기술연구소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1981년부터 총 2,020명의 수산업 경영인을 육성해 왔으며, 이들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청·장년층의 어업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한 수산업 경영인을 양성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 업무 통합 시행

유지 · 관리 체계 일원화… 현장 대원 업무 경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행정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 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일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에 도내 15개 소방서가 개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를 하나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소방서 담당자와 현장 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시간을 훈련과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호흡기 용기는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관련 법령(고압가스법,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위생 검사가 요구된다.

2024년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호흡기 용기는 총 6,440개(공기호흡기 6,065개, 스쿠버 용기 375개)이며, 이번 통합 운영으로 검사 이력 관리의 정확성과 유지·관리의 체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2025년 1학기 성인(리더자)의 필수!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자신감, 리더십, 시낭송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김양옥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기업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스피치, 시낭송지도사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김양옥 교수)

〈전북특별자치도내 평생교육원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매주 1회 수업)	지역별(자유선택)
전주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금, 야간)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 스피치&긴장해소, 스치피&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수, 야간) 스피치&웃음코칭(수, 주간)	익산, 김제, 논산, 강경, 무주
군산대학교(군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야간)	군산, 서천, 부안, 김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간)	정읍, 고창, 순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곡성, 구례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3월에 학교별로 개강